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 후원미사는 17일, 2019년 1월 후원미사는 21일, 2019년 2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1,781,020	전월이월금	15,558
지 로	1,046,330	우리은행	2,992,910
국민은행	3,923,000	하나은행	991,130
조흥은행	75,020	신한은행	1,000,120
외환은행	302,500	제일은행	125,010
농 협	1,045,000	기업은행	250,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1,028,422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2,825,000	잔액(이월금)	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8. 11 / 제29호

펴낸날 2018. 11. 19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편집 김평안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리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을 피해 3개월의 여정을 끝내고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자님과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한 달은 캐나다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자 분들을 만났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단돈 200달러를 쥐고 처음 캐나다에 와 3-4개의 일을 하면서 하루 세 시간만 자면서 6개월을 살았던 청년의 회고는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가족도 만났습니다. 사업을 위해 이민을 선택한 사람, 학업을 위해 이주를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이주를 하여 어렵게 정착을 하여 살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살아 갈 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회고의 시간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민을 왔지만 정착에 실패하고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참 좋다고 느끼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자 나지막이 흐리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민정책이 잘 되어 있고 이주의 역사가 긴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선주민으로서의 현재의 이민자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주민지원센터와 선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주노동자문제와 이주배경자녀 문제와 현재도 이주민이 계속 들어오지만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주민의 문제, 이들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이민정책과 차별금지법등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지만 이들 역시 아직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민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의 침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만 그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이 잘 실행되고 있는 캐나다나 아직 30년도 채 되지 않는 한국의 이민에 대한 현상은 현상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선주민으로서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기득권자로서 시혜를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인간이며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한다는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를 이주민의 여정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만나고 경청하고 실천하자고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탈출의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신명 31.6) 이주민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다. 용기를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시다. 이주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추위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 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님과 가정에 아버지의 자비가 살아 숨쉬기를 미사와 기도로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 소식* 성지순례

베트남공동체는 10월 21일에 강화도 일만 위 현양순교자 동산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이주노동자 약 120명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국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고네공부방 소식*

마고네 공부방 학생들을 위해 매주 미술수업과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어렵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이끌어 내고 지지하여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가톨릭 상호문화센터 소식*



2018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알록달록 아카데미"공모사업인 무지개공방(재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축제에 참석하여 이주여성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고 더불어 음식 부스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그동안 노력한 시간들을 결실 맺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갖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미사 변경 소식*

11월부터 후원미사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 시간 : 10시 30분
- 장소 : 지하 소성당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생물관찰(미꾸라지관찰) ▲ 퍼포먼스 활동(신문지찢기)

문화알림 전통의상 2편



한국처럼 주로 결혼식 때 많이 입으며 태국 남자 전통복은 자켓과 기장이 짧은 바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 어깨에 걸친 '씨빠이'가 특징입니다.

여성 슈타이는 주로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 스타일로, 여성미를 많이 강조하며, 옷과 연결되어 있는 씨빠이를 뒤로 감아 넘겨주는 길이가 긴 편이라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허리는 벨트모양의 캄갓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간소화된 슈타이를 많이 입습니다.



남성용은 목 부분이 차이나 카라처럼 되어 있고 대부분 흰색이며 '바롱 따 갈로그'라고 합니다. 여성용은 '바룻 샤야'라고 부르는데 필리핀 전통축제나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 주로 입고 갑니다.

큰 행사와 파티가 있을 때 입는 필리핀 정장으로 열대지방의 의복답게, 바롱은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나무 잎사귀 등에서 실을 뽑아 옷을 만듭니다. 얇고 투명한 천을 사용해 만든 옷이기 때문에, 입을 때 안에 흰 색의 긴 팔 셔츠를 받쳐 입어야 합니다.



페루의 전통 의상들은 주로 화려한 색채와 안데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산악지역으로 갈수록 원색계열의 화려한 색채를 띄며, 재료는 알파카의 털이나 여러 종류의 모직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전통의상 '판초'는 털 모피로 되어있고, 가운데 구멍을 내 머리가 나오도록 뒤집어쓰는 일종의 "관두"라고 일컫습니다. 상반신부터 무릎까지 완전히 감싸는 망토 형태인데, 안데스 고산지방에서는 방한을 위해 벗어서 모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바지는 평범한 것을 입을지라도 판초는 화려한 색상으로 짜여진 기하학적 무늬의 것을 주로 입습니다.